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4권 제2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3, 8, Vol. 14, No. 2, 123-170.
doi <https://doi.org/10.12964/jsst.23008>

눈사람: 자기(Self)실현과 대극합일의 상징

Snowman: A Symbol of Self-Realization
and Unity of Opposites

마 경 희
Kyunghee Ma

신 지 현
Jihyun Sin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눈사람: 자기(Self)실현과 대극합일의 상징

Snowman: A Symbol of Self-Realization and Unity of Opposites

마 경 희*
Kyunghee Ma

신 지 현**
Jihyun Sin

<Abstract>

This literature review delves into the symbolic aspects associated with snowman. The study examines the symbolism connected to bot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nowman and the eventual melting of snow. Furthermore, it explores how snowman can be seen as representations of life's patterns and natural processes. Particularly, the analysis scrutinizes snowman as integrative symbols within a broader dramatic context. The research also reveals how the cyclical processes of nature parallel the concept of individualization, leading to self-understanding and Self-realiz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mbolism of snowman, shedding light on their relevance in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Key words : symbolism, snowman, life cycle, individualization, Self-realization

* 주저자, 건국대학교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문학·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kidedu@naver.com)



Copyright ©2023,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눈사람(Snowman) 만들기는 어릴 적 동심을 대표하는 추억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눈을 굴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거나, 크고 작은 눈을 뭉쳐 자기만의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은 지면에 쌓인 눈을 모으거나 굴리면서 점점 더 큰 눈덩이로 만들어야 한다. 아래에 놓을 큰 눈덩이를 만들고 나서, 다시 그것보다 작은 눈덩이를 조심스럽게 올려서 눈사람이 완성된다. 눈사람 만들기는 눈(雪)을 이용해 입체적인 구(球)의 형태로 만드는 창작과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눈사람 만들기는 창작의 과정이면서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다.

Dora Kallf는 Jung의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 개념을 전제로 모래놀이치료를 탄생시켰는데, ‘적극적 상상’을 통해 인간은 내면에 미처 인식되지 못한 감정과 관념들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내면에 감추어진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장미경, 2022). 이처럼 내면 탐색에 중요한 적극적 상상은 현실에서 실제적인 놀이로 일어나거나, 치료 장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눈사람은 미술치료나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주로 흰색으로 표현되었다. 흰색은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을 연결하며, 밝음과 수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양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눈사람은 원형(circle) 또는 구(球)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났는데 Cooper(1978/2007)는 원을 보편적 상징으로써 완전성, 전체성, 동시성 그리고 원초의 완전함을 뜻하며, 자기 충족, 자기(Self), 비현현(非顯現), 무한성,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연결 즉, 시작과 끝이 연결된 무시간, 위와 아래가 연결된 무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용중, 김용철(2012)은 원에 표상된 합일적 세계관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류는 원이라는 조형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관념인 초월, 합일성, 회귀, 자기실현 등을 표상하고 있다고 했다. Jung(1964/2016)은 원(또는 구)을 자기(Self)의 상징으로 설명하며,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 전체, 즉 전일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부영(2021)은 정신 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이 무의식에 있다고 보며, 자기실현은 무의식을 살려서 자기의 전체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Jung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Jung이 말하는 개성이란 자기(Self)와 같은 말로, 자신을 의미한다. 즉, Jung의 자기실현은 ‘자기가 되는 과정’이며, 자기실현이나 개성화는 자기인식(Self knowledge)의 과정이다.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우리말에서 ‘깨달음’과 뜻이 유사한데, 불교 승려이자 Jung 분석가인 미유키는 깨달음이란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이나 자아-부정(self-negation)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하는 노력에 있다고 했다.

눈사람은 구(球)와 원(circle)의 형태로 우리의 공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Cooper(1978/2007)는 원은 원형과 구형(球刑)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소멸시키지만, 회귀도 의미한다고 했다. 이처럼 눈사람을 만드는 눈(雪)의 속성은 소멸과 회귀의 대극적 요

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눈(雪)의 기후학적 현상에서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눈사람은 죽지 않아』의 작가 Thierry Dedieu(2019/2020)의 동화에 나타난 눈사람은 녹아서 형체는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없음’이 아닌, 어디서든 존재하며 무엇으로든 나타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 동화에 나타난 생(生)과 사(死)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노자의 『도덕경』 제2장에서도 나타난다. 이부영(2019)은 노자의 『도덕경』 제2장에 대해, 대극은 대립한 양극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지닌 상대적인 것이며, 분석심리학의 ‘자기(Self)’에 일치하는 전체정신으로의 접근, 즉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보았다. 장미경(2022)은 대극은 본래 하나의 상태였으나 한 극은 의식되고 다른 한 극은 무의식화 되기 때문에 자아는 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을 억압하지 않고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눈사람의 특성이 갖는 상징성을 먼저 살펴본 후, 3장에서 문화적 요소로 나타난 눈사람의 상징성을, 4장에서는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눈사람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연령에서 다양한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눈사람(Snowman)의 상징을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의식이 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식화하여, 자기성찰과 자기실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대극의 합일과 자기(Self)실현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눈사람이 가지는 상징성을 알아봄으로써, 개인이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대극합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자기 내면을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하여 자기실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눈사람의 특성

눈사람은 눈(雪)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일련의 창작과정을 가진다. 2장에서는 눈사람의 색, 모양, 속성이 갖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눈사람의 색: 흰색

우리 조상들은 매우 희다는 뜻으로 순백(純白), 백정(白精), 정백(精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박연선, 2007), 눈은 순백색의 흰색이다. 김남예(2023)에 의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희다’의 “희”를 ‘아래 흥’로 표기했으며, 이는 태양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때의 흰색은 자연 그대로의 색, 무색(無色)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올

바른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색을 지닌 옷을 입었다고 했다. 아기가 태어나 건강하게 백일이나 돌을 맞았을 때 상에 놓는 백설기도 흰색인데, 이것은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으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 백색의 사용은 조선시대 훨씬 이전 시대인 삼국 시대부터 즐겨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문헌인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을 살펴보면 한민족은 흰색 옷을 일상복으로 입었고, ‘백의민족’이라 불렸다(박현주, 나지영, 2010). 나지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흰색은 오행설에 어긋난다고 하여 끊임없는 금제가 내려졌음에도 우리 조상들이 흰색을 민간에서 가장 많이 애용한 이유에 대해, 흰색은 밝음을 의미하는 신성한 색이며, 자신을 갈고닦으며 수련하는 선비의 상이었기에 이들의 이미지가 흰색으로 투영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이 상복으로 백색 옷을 입은 것은 흰색이 망자의 저승길을 밝히며, 사자의 영혼이 좋은 세계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Ingrid Riedel(1999/2004)는 흰색을 근원적 경험에서 기인한 색으로 보았는데, 예를 들어 아직 밟지 않은 눈 내린 하얀 대지나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신선하게 피어있는 흰 꽃과 같은 근원적 경험의 색으로 보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된 처녀성과 순결을 의미한다고 했다. Ingrid의 설명을 바탕으로 경험상, 우리는 밤새 하얀 눈이 쌓여 아무도 밟지 않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하얀 눈길을 보면 가장 먼저 내 발자국을 남겨보거나, 손으로 눈을 한 움큼씩 모아 눈사람을 만들거나 흔적을 남기곤 했다. 그러한 점은 무의식이 주는 근원적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Ingrid Riedel(1999/2004)는 흰색은 ‘시작’의 의미가 있으며, 무채색, 색의 한계성, 분할되지 않은 빛의 총체로서, 모든 색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했다. 흰색은 절대적인 색이자 시작과 끝, 비움과 채움, 이것들의 합일을 표현하는 색이다. 그것은 시작의 의미를 지닌 단순함과 소박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아직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림자와 같은 부정적인 상정을 내포하고 있다. 흰색은 모든 것을 내포하는 색으로 잠재성과 개방, 자유를 의미한다. 흰색은 빛의 상징성을 가지는데, 깨달음, 비움의 색이며, 부활과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흰색은 완전성이면서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로 연꽃이 진흙탕에서 더러움을 극복하고 흰 꽃으로 피고 있으며, 이러한 연꽃은 이집트, 불교, 힌두교에서도 부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박현주, 나지영(2010)은 흰색이 중화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흰색은 흰색과 함께 사용한 색상들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게 하거나, 흰색이 사용된 위치에 따라 색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게도 한다. 흰색은 어떤 색과도 어울리는 조화로운 색이지만, 전체 색상의 느낌을 바꿀 만큼 강한 영향을 주는 색이기도 하다.

다양한 기후 관련 자연물 중, 눈은 고유의 깨끗한 흰색으로 인해 순수한 이미지들과 쉽게 연결된다(차선일, 2014). 그러나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겨울이란 매우 길고 혹독한 계절로, 겨울에 내리는 눈은 어려움의 상징이었으며, 흰색은 고난이나

역경, 때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부정적인 색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한영선, 2022). 박옥규(1983)는 흰색을 허무함이나 막연함, 무기력 등 공백의 색으로 보았으며, 문복희(2020)는 흰색에 대해 순결과 순수, 신성함, 충만의 긍정적 이미지와 결핍, 고난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흰색은 긍정과 부정, 생(生)과 사(死)를 연결하고 있었으며, 밝음과 정신의 수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고난과 역경을 나타내는 양가적 상징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눈사람의 흰색은 시작의 색이면서, 조화의 색이며, 끝일 것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재생의 색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흰색은 서로 다른 대극이 포함된 합일의 표현 색이기도 하다.

2. 눈사람의 모양: 원과 구

Ruth Ammann et al.(2018/2021)은 원과 원에 가까운 소용돌이의 그림은 태고의 상징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으로 보았고, Allan(1946/2015)은 원형(circle)은 우주라는 의미가 있으며,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되는 완전함, 완벽 또는 영원을 상징한다고 했다. 또한 원의 둘레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동등함’을 의미하며, 아서왕의 원탁처럼 ‘평등한 지휘’를 상징하며, ‘포함’과 ‘보호’를 의미한다. 김웅중, 김용철(2012)의 연구에 의하면, 원은 인간의 근원적 대극인 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원은 신과 인간의 합일이며, 회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원을 합일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내면의 무의식이 자발적인 의식으로 표상되는 개성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의 궁극적인 전체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문제나 정동을 놀이, 미술, 동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도와 자신의 자기 치유적 힘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있다(문현영, 한유진, 2016). 장미경(2022)은 모래놀이치료에서 강조되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Jung의 분석심리학적 개념이 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인 것, 특히 원형(archetype)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는 상징으로 투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형에너지는 예술, 꿈, 모래놀이 등을 통해서 투사되어 드러난다고 하며, 원형 중에서도 중심원형인 자기(Self)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개인의 성격의 근원 및 뿌리라고 했다. 또한 개성화 과정은 자기(Self)원형의 역동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독특함을 분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간의 직면을 통해 상징으로 통합된다고 하였다. 이부영(2021)은 Jung의 자기실현 과정 즉 개성화 과정은 수많은 환자와 건강인의 꿈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분석하고 관찰하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운 것으로, 분석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점은 자기실현을 통해 의식성을 회복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기실현은 분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자기실현 과정은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원형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전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자아의식이 내면세계에서 오는 창조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했다.



그림 1. 흰색 스펀지볼의 쓰임



그림 2. me, 회귀의 공간



그림 3. 자기표상-눈사람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박사과정 대상관계 수업을 통해 자기표상으로 눈사람을 그렸던 자기 탐색적 집단미술치료 장면이다.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s)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도구는 ‘흰색의 스펀지볼’이었다. 흰색의 스펀지볼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snow)의 상징이었다. 스펀지볼에 물감을 묻혀서 질감이 느껴지게 표현되었으며, 처음 물감을 찍은 중심점에서부터 외곽으로 점점 확대시켜가며 원을 크게 표현했다. 화지에 가장 먼저 그린 것은 ‘me’라는 우측 상단의 원형으로, 그것은 ‘나만의 우주’를 의미하고 있었다. 물감이 묻은 스펀지볼들은 버리지 않고 눈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 ‘me’의 공간은 스펀지볼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회귀의 공간이었다. 그림 2는 자기표상이라는 ‘세계’를 표현한 스펀지볼, 즉 ‘눈’이 만들어지는 곳이자, 눈이 ‘세계’로 내려와 쓰임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회귀의 장소로 표현되었다. 흰색의 눈사람에 덧대어 질감을 표현한 다른 색들은 ‘열정’, ‘호기심’, ‘아픔’, ‘실패’ 등의 다양한 삶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4는 자기표상 그림으로 쓰임(用)을 한 후, 눈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 구(球)형태로, 어떤 면에서는 삶의 경험 수준으로 표현된 가족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여러 내면의 모습이었다. 화지에 표현된 평면의 눈사람, 입체의 눈사람 모두 자기(Self)가 가진 여러 내면의 모습으로, Jung이 의미한 다양한 원형-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조나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5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순백색의 눈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해되었는데, 그림 4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흰색이 중심에 있으면서, 지면을 표현한 보라색과 눈사람에 쓰인 노란색이 함께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눈이 순백으로 보이지만, 사람들 눈

에 보이지 않는 고통, 갈등, 희망, 성장, 행복 등의 상충하는 감정들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눈사람으로 표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림 4. 스펀지볼 눈사람



그림 5. 가장 먼저 선택한 표현 도구

이부영(2021)은 Jung은 만다라의 모든 것이 중심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질서 지어지며, 동시에 에너지의 원천을 묘사하는 인격 중심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Jung은 만다라를 음(陰)과 양(陽)에 있는 천지간의 모든 대극의 융합이라고 보았다. 만다라 중심에서의 사람은 작은 ‘나’로서가 아니라 ‘자기(Self)’로서 느끼며 생각하고 있으며, 원의 변두리를 포함하며 ‘자기’에 속하는 모든 것, 즉 인격 전체를 이루는 대극을 그 안에 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iella(1961/2012)에 의하면, Jung은 만다라가 하나의 점, 즉 중심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다라는 모든 길의 표현이자, 중심을 향한 길, 즉 개성화(자기실현)를 향한 길이라고 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표현된 눈사람은 Jung이 말한 만다라 중심의 원이 모든 변두리와 관계되어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운데에서 시작되어 외곽으로 점점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무의식적 내면을 작업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었다.

3. 눈사람의 속성: 자연의 순환과 창조

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눈은 기온이 0°C 이하일 때 대기의 상층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땅에 내리는 흰 결정체(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 2016)이며, 공중에서 떠다니는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흰 결정체(민중서림 편집부 편, 2016)이다. 대기에서 응결된 결정체는 눈(snow)으로 바뀌어 지면으로 내리고, 눈은 다시 따뜻한 기온에서 물(water)로 그 형태를 바꾼다. 물은 다시 대기 중으로 기화(氣化)된다. 이것은 자연의 대순환과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노자는 『도덕경』 제40장에서 反者(반자), 道之動(도지동), 弱者(약자), 道之用(도지용), 天下萬物生於有(천하만물생어유), 有生於無(유생어무)라

하였다. 역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임현규(2023)는 되돌아옴은 도의 운동이며, 유약함은 도의 작용이고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났으며,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고 풀이하고 있다. 정대철(2013)은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운동이요,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라고 노자의 제40장을 풀이하며, 모든 만물이 중국에 도(道)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의 법칙이며, 도(道)는 강(強)을 쓰지 않고 유(柔)와 약(弱)으로써 진정한 강(強)을 이룬다고 풀이한다. 또한 천하 만물은 있음(有)에서 생겨났고, 有(있음)은 없음(無)에서 생겨났다고 풀이하고 있다.

오강남(2004)은 『도덕경』 제40장 원문을 풀이하면서 도(道)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근원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찾아감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나아가 그 존재들에게 각자의 특성을 가진 개체로 존재하게 해준다. 이런 뜻에서 도의 근본적인 특성을 창조성(creativity)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노자와 Jung의 사상을 비교한 이부영(2015)은 노자의 대극 합일에 대한 전체성에 대해, Jung은 자신의 개성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Jung은 개성화를 끊임없는 인격의 변환 과정으로 보았으며, 항상 새로워짐으로써 좁은 의식의 중심이던 자아(ego)가 의식, 무의식을 통틀어 전체정신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눈(雪)의 순환과정은 노자가 말하는 反者(반자) 道之動(도지동), 즉 되돌아옴이고, 도의 순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녹아내리기도 하며 물로 흐르기도 하며, 수증기로 가볍기까지 한 눈(雪)은 노자가 말하는 弱者(약자)로 해석될 수도 있다. 道之用(도지용) 즉, 자연의 대순환을 위해 눈으로 만들어지고, 물로 만들어지며, 수증기로 다시 회귀된다.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눈(雪)은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대순환에 쓰임(用)을 하고 있으며, 눈사람으로 창조되었다가 사라짐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그림 3에 표현된 눈사람 자기표상 이미지도 도(道)의 근본적 특성인 창조성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포함된 자연 속에서 눈은 순환되고 있으며 항상 새롭게 창조됨으로서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로 다가가는 자기실현의 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의 순환과 창조적 특성은 문화 요소로 나타난 눈사람 상징에서 보다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문화로 나타난 눈사람 상징

1. 눈사람의 상징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시집에 수록된 윤동주의 시, 『눈 오는 지도』에서 ‘눈’은 부정적 현실을 표상하고 있는데, 시인은 부정적 현실을 계절의 순환으로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구조는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윤동주의 시적 자세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에 쓰인 윤희주의 산문과 시편에 계절의 순환에 대한 사유가 두루 나타나고 있다(하빛나, 2019). 이 시에서 눈이 계절의 순환을 상징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점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분열된 인간의 대극적 요소들—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이 통합하며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양상이다. 윤희주의 시에 나타난 자기 동일성의 상실, 지향, 회복의 관점은 Jung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이는 종교의 심리적 기능, 즉 내면적인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조형연, 2004).

자연 현상인 눈의 애니메이션 CG를 분석함으로써, 그 상징성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요소도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은 「눈의 여왕」이 원작으로, 눈(snow)이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타난 눈 표현 방식을 연구한 유미(2014)는 눈(snow) 시뮬레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눈의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엘사와 안나의 갈등 이후 전체 장면(scene)에 눈의 장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겨울왕국」에서 보인 눈 표현의 한계점으로 눈의 상태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눈은 작은 얼음 알갱이의 일종으로 녹으면 물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즉, 주변 온도나 열에 의해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해야 한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장면 중, 눈사람인 올라프가 벽난로의 열에 의해 녹아내리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올라프의 녹는 모양은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녹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로서 자연 현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적 요소를 논의한 이와 같은 연구는 상징적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한 눈이 최대한 자연현상 그대로 나타나길 바라는 점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눈(雪)과 눈사람 상징을 더욱 광범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자연의 상징이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는 상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 어린이 문학과 문화 요소로 나타난 눈사람 상징

Thierry Dedieu(2019/2020)의 Snowmen Live Forever는 우리나라에서는 「눈사람은 죽지 않아」라는 제목의 어린이 동화로 번역되었다. 동화에 등장한 눈사람은 새로운 놀이를 누구보다도 잘 생각해 내고, 친구들을 늘 즐겁게 했으며, 이 세상에 모르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사람은 뜬금없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친구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물에 들어가면 녹게 되는 눈사람이 왜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림 6. 눈사람이 녹는 장면



그림 7. 눈사람이 사라진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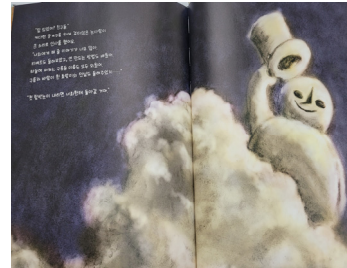


그림 8. 구름이 된 눈사람

<https://blog.naver.com/agtotoro79/222963980021>

그림 6, 그림 7에서 보이듯, 동화 속 친구들은 눈사람이 ‘물’로 변해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 슬퍼한다. 하지만 큰 꿈 선생님이 눈사람은 녹으면 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숲속 친구들은 눈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가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좌절하고 있던 순간, 하늘에서 구름 형태를 한 눈사람을 만나게 된다. 눈사람은 추워지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한다(Dedieu, 2019/2020). 이 동화에서 눈사람은 친구들의 세상에서는 사라졌지만 다른 세상에서 ‘구름’의 형태로 모양을 달리하고 있고(그림 8), 계절이 추워지면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감’을 약속하고 있다.

이 그림동화에서는 눈이 물을 만나면 녹게 되는 대극의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현자로 볼 수 있는 큰 꿈이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긴장은 완화되기 시작하여, 눈사람이 ‘다시 돌아감’을 약속하면서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고 있다. Cooper(1978/2007)는 물, 바다, 강, 샘물은 모든 가능성의 원천,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무덤인 동시에 태모(urmutter), 탄생, 여성성, 우주의 자궁, 풍요와 재생, 생명과도 관계된다고 했다. 동화에서 눈사람은 물로 변했다가,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구름으로 변해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눈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이부영(2021)은 ‘자기(Self)’는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불로, 혹은 바람과 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Jung은 자기(Self)를 복합적인 것이라고 했다. 자기실현은 한 인격의 변환 과정이며, 변환은 무의식의 의식화로 이루어지는데, 무의식을 연구한 모든 Jung의 연구에서 이러한 변환 과정은 직·간접적으로 자기실현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눈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3. 노래에 나타난 눈사람 상징

1969년에 방영된 미국 CBS의 애니메이션 영화, 『Frosty the Snowman』은 크리스마스 단편 TV 애니메이션으로, Romeo Muller가 원작자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1950년 Steve Nelson이 작

곡하고, Walter ‘Jack’ Rollins이 작사한 동명의 노래 Frosty the Snowman이 원안이 되었다(Daily Herald, 2019). 『Frosty the Snowman』은 약 25분가량의 애니메이션(2018)으로, 눈사람 프로스트와 소녀 카렌은 눈사람이 녹지 않도록 함께 북극을 찾아 떠나게 된다. 눈사람이 녹지 않도록 냉장용 기차 칸(refrigerated boxcar)에 함께 올라타는데, 카렌은 결국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된다. 그런 카렌을 위해 온실에 들어간 눈사람은 마법사의 꿈에 의해 온실에서 녹아버리게 된다.



그림 9. 눈사람이 녹아서 물이 된 장면



그림 10. 눈물을 흘리는 장면

<https://youtu.be/bSzBBK8gC6c>

『Frosty the Snowman』의 애니메이션은 눈사람이 녹아서, 카렌이 울 때(그림 9), 슬픔이 극대화된다. 밝은 노래 『Frosty the Snowman』이 느린 박자로 변주되어 나올 때 슬픔이 최고조가 되어 시청자는 대극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최고조에 달한 갈등이 해결된다. 산타 할아버지는 눈사람은 크리스마스 눈으로 변해서 영원할 거라고 카렌에게 말한다. 크리스마스 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봄으로, 여름비로, 추운 겨울바람으로 나타난다고 위로한다. 그때 카렌이 눈물 한 방울을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그림 10)이 나온다. 그 눈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바람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자, 눈물이 눈사람으로 변한다. 이렇게 눈사람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다. Thierry Dedieu (2019/2020)의 Snowmen Live Forever에서도 눈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존재로 표현되고, 여러 형태의 존재로 회귀됨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Frosty the Snowman』에서도 눈사람은 카렌이 흘린 눈물방울에서 다시 다른 형태로 살아나고 있었다.

음색이 독특한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Sia가 부른 『Snowman』은 국내에서 TV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Frosty the Snowman』의 이야기가 노래 가사의 배경이 되고 있으나, Sia의 노래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Sia(2017)의 노래는 눈사람과 카렌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로 가사가 이어진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울지 말아요, 스노우맨,
Who will catch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누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까요? 당신이 나를 잡지 못한다면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당신이 나를 잡지 못한다면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울지 마요, 스노우맨, 이런 식으로 나를 떠나지 말아요
A pudd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녹아버린 물웅덩이는 날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날 꼭 안아줄 수가 없어요.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Cause I'm Mrs. Snow, 'till death we'll be freezing
난 눈사람의 아내이니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얼어 있을 거예요

Yeah, you are my home, my home for all seasons
맞아요, 당신은 나의 보금자리예요, 사계절 내내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그러니 함께 가요, 태양을 피해 영하로 내려가요
I love you forever and we'll have some fun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곳에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그래요, 북극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제발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My snowman and me yeah, My snowman and me
나의 눈사람과 나, 나의 눈사람과 나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울지 말아요 스노우맨, 태양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Who'll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달릴 다리도 없는 날 누가 데려갈까요?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는 나를 말이에요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울지 말아요 스노우맨,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Who'll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당신에게 귀가 없다면 누가 내 비밀을 들어주겠어요?

『Frosty the Snowman』에서는 Santa가 눈사람과 캐런을 도와주지만, Sia의 노래에서는 ‘Snowman and Me’만 등장하고 있다. 가사 전체에서 좌절과 희망이 반복되고 있다. ‘Hide from the sun’이라고 두려워하지만, ‘Don't you fear the sun’이라고 노래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대극의 양상이 나타난다. 대극의 감정은 또다시 나타나는데, ‘We'll have some fun’ 우리는 북극에서 재미있게 지낼 거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Who'll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눈사람이 사라지면 내 비밀을 누가 들어줄 것인지 낙담하고 있다. Sia의 『Snowman』에 나타난 눈사람은 카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Jung이 말하는 무의식의 인격화된 것들로 해석될 수도 있다. Jung(1964/2016)은 무의식이 갖는 양면성을 중요하게 보며, 무의식의 인격화된 모든 것, 즉 그림자, 아니무스, 아니마, 그리고 자기(Self), 이것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자기(Self)의 양면성을 성찰하여 자기 자신 안의 내적 대극을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통합해야 하며, Jung은 그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Sia의 노래에 나타난 ‘Snowman and Me’는 대극을 통합시키고 있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즉 자기실현을 향해 가는 자기(Self)의 모습이었으며, 계속되는 갈등의 반복으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해석해 볼 수 있다.

Jung(1943/2023)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대극을 통합하고 전체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정신의 중심 요소인 자기(Self)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Jung은 연금술에서 자기(Self)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에 관한 많은 상징을 발견하였는데, Jung(1954/2017)은 연금술사들이 상반된 것들을 결합하려 노력했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다. Sia의 노래에는 ‘Sun’ 즉 태양이 나타난다. 태양을 피해야 하기도 했고, 태양을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되기도 한다. Marie-Louise von Franz(1980/2022)는 태양은 의식의 측면으로, 부분적으로는 자아(ego)와 연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기(Self)와 연결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태양은 대극을 포용할 수 있는 의식의 원리를 함축하기에 한 측면에서는 무의식에 열려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닫힌 시스템’으로 일방적이면서 파괴적일 수 있다고 했다. 『융합의 신비 Mysterium Coniunctionis』에서 Jung(1954/2017)은 태양을 영적 신성의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태양이 한편으로는 그 자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Jung은 자아(ego)는 자기(Self)를 위한 자기실현의 도구일 정도로 자기(Self)와 같으며, 오

직 자아 중심적인 팽창된 자아(ego)만이 자기(Self)에 대립한다고 했다. 개성화된 사람의 자아는 자기의 발현일 것이며, 그것은 무의식에 대한 위대한 개방성으로 특징되어 정당한 태양처럼 기능한다고 했다. Marie-Louise von Franz(1980/2022) 자아는 무의식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끊임없이 무의식에 다가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Self)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다. Sia의 『Snowman』에서는 태양에 의해 물웅덩이로 변하거나, 녹아서 다리가 사라지고, 귀가 사라지는 눈사람이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얼어 있을 거라고 표현한다. 대극의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의식이 무의식에 다가가는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Sia의 『Snowman』에 등장하는 『눈사람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개인이 내면으로 겪는 성장의 과정, 즉 개성화 과정을 향하고 있는 자기(Self)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성인의 문학에 나타난 눈사람 상징

최승호(1996)는 그의 시, 『눈사람 전시회』에서 ‘녹는 눈사람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상의 예술 가운데 가장 순결한 걸작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녹아서 없어지는 눈사람을 전시회장으로 옮기고, 곧바로 녹으므로 전시할 수 없는 상태의 눈사람을 가장 순결한 걸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역설적 관점은 대극의 합일을 의미하고 있음을 앞서 문헌에서 살펴보았다. Cooper(1978/2007)는 눈이 녹는 것은 경직되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수학을 전공한 시인 함기석(2017)은 자신만의 정서와 표현을 담은 시산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시산문집에서 무한의 세상, 무상(無相), 무주(無住)를 노래하고 있었다.

너와 나는 본질적 상으로서 주어가 아니다. 주체는 호를 뿐 결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있다’는 없는 것이며, ‘있다’는 상으로 잠시 존재하는 ‘없다’의 유령체다. 그러니 ‘없다’도 없어야 비로소 없는 것이다(함기석, 2017, p. 156).

그는 자신의 시산문 『비와 달빛 속의 눈사람』에서 눈사람을 무한의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언어를 통해 세계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간과 사물들의 실존, 그 부재하는 그림자를 찾아가는 싸움이고 자신을 자신의 언어로 치단하는 형벌, 그것이 창작인지도 모른다. 우린 모두 제로(0)와 무한(∞) 사이에서 녹고 있는 눈사람(8), 자신의 부재를 자신의 몸 전체로 목격하고 기억하기 위해 눈동

자부터 녹아내리는 진행형 물질(함기석, 2017, p. 153).

수학을 전공한 함기석 시인은 숫자 0과 8, 8을 옆으로 돌려 무한(∞)으로 눈사람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었다. 자신을 눈사람과 동일한 개체로 인식하고 있는 함기석의 시산문은 노자의 도덕경 제14장과 연결점이 있다. 오강남(2004)의 풀이에 의하면, 도덕경 14장은 도의 신비적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이름하여 이(夷)라 하며,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이름하여 희(希)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 이름하여 미(微)라 하며, 이 세 가지로도 밝혀낼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하나로 혼연일체를 이룬 상태, 그 위라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래라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며,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어 결국 ‘없음’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풀이한다. 노자의 이러한 도(道) 사상은 Jung이 말하는 정신의 전체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부영(2019)은 Jung은 그의 학설의 핵심인 정신의 전체성, 즉 자기(Self)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동양의 유례로서 노자의 도를 제시하였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전체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문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함기석의 시산문은 수학의 기호로서 세상을 표현하면서 무한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세상, 자기(Self)를 향한 탐구의 여정과 그 결을 함께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변경섭(2016) 소설집, 『눈사람도 사랑하네』에서 소설의 주인공이 사랑한 그녀가 주인공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꼭 눈사람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눈이 평평 내리면 오빠랑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어놓고는 마당 한구석에다 세워놓잖아요. 바로 그 눈사람..... 눈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내 녹았다 얼었다 하다가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요즘은 겨울에도 너무 따뜻해서 금방 녹아 없어져 버리긴 하지만..... 당신은 그 눈사람 같아요. 어찌 당신만 그러겠어요? 세상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애만 태우다 속 문드러지는 사람, 겨울 추위에 온몸이 드러나도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눈사람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태껏 내 의지대로 살아본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눈사람인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눈사람이니까..... 정말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p. 114).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삶에 있어 수동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서로를 눈사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체로 보고, 서로를 향해 녹아서 없어져 버릴 사람이라고 보지만, 결국 그 눈사람들은 껴안고, 서로에게 서서히 녹아들도록 했다. 저자는 소설의

끝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설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녹아내리는 신체가 안타깝기라도 한 듯 둘은
갈망의 눈빛으로 서로의 슬픈 눈동자만 쳐다보았다. 이내 둘이 누워 있던 자리는
물이 흥건하였다. 봄이 오고 있었다(p. 114).

변경섭(2016)의 소설, 『눈사람도 사랑하네』에서 나타난 눈사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
으며, 눈사람이 녹아내림으로써 ‘봄’이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인 김진
경 작가는 추천사를 통해 변경섭의 소설은 비극적 미학을 ‘눈사람’이란 말로 요약하고 있다
고 했다(김상훈, 2016). 최승호(1996)는 시집 『눈사람』에 수록된 그의 시 『눈사람의 길』에서
눈사람이 녹는 것에 대해, 나타난 모든 물질이 서로 연결돼있고, 머무르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눈사람의 길

눈사람이 녹는다는 것은 / 눈사람이 불탄다는 것,
불탄다는 것은 / 눈사람이 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재가 물이다 / 하얀 재 / 더 희어질 수 없는 재가 물이다

시냇물 / 하얀 재 흐른다/ 눈사람들이 둥둥둥 물북을 치며
강으로 바다로 은하수로 흘러간다

흘러간다는 것은 / 돌아간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 (p. 27)

최승호는 그의 시 『눈사람의 길』에서 눈이 곧 불이 되고 있고, 다시 재가 되며, 그 재는
다시 물이 된다. 최승호의 시에는 비약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흘러서 머무를 수 없는 물이
머무를 수 있는 재와 동일체가 된다. 이것은 대극의 상징이며, 자연의 대순환, 무한성을 표
현하고자 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연금술의 ‘변형’이라는 개념과 이어지는데,
Jung(1954/2017)은 연금술의 변형은 가치의 정신적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가치
개념은 ‘변형된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하며, 더 높고, 더 정신적으로 여겼다. 눈사람은
계속 변형된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통합된다. 눈사람의 이러한 변형적 속성
은 자기(Self)의 모든 원형의 속성—그림자, 페르조나, 아니마, 아니무스—의 통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기실현은 개인이 가진 무의식의 열등 기능일지라도 억압하지 않고 의식화하려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문화적 요소로 나타난 다양한 눈사람의 상징에서 자기실현과 대극의 합일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IV.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의 눈사람

앞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눈사람 상징 사례로 이해를 도우려 한다.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눈사람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내담자 A의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나타난 눈사람은 모래와 물을 섞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흰색 점토를 별도로 사용하여 눈과 눈사람을 모래상자에 위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눈사람이 가진 흰색의 고유한 색이 주는 무의식적인 심상과 근원적 경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 내담자 A의 눈사람과 눈



그림 12. 내담자 B의 사례

그림 12는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나타난 눈사람으로, 내담자 B의 사례이다. 내담자 B는 40대 후반으로, 프리랜서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가계의 생계를 주도적으로 꾸려온 기혼 여성이었다. 내담자 B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정의 생계까지 돌보며 책임을 다해왔다. 막내로 태어났으나, 맏이의 역할을 하며 자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회기에 참여할 당시 남편과 딸이 자신과는 다르게 모든 일에 나태함을 가지는 것에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잦은 갈등이 있었다. 내담자 B는 딸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왔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책임감 없는 가족들의 태도에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고, 잦은 다툼으로 인해 가족

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으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2에서 내담자는 상자 우측 벽에서부터 울타리를 치며 눈사람과 눈이 내린 나무를 그 안에 배치했다. 자신을 눈사람으로 표현했으며, 스티로폼으로 눈을 표현했다. 울타리 안쪽엔 눈이 내렸으나 울타리 밖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 울타리 안은 매우 추운 곳이지만, 따뜻한 털목도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내담자 B는 울타리 밖을 설명하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밖은 생명이 없어요, 울타리 너머로 군고구마 냄새가 넘어오지만,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 만지면 내가 녹을 거니까요” 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면, 울타리 밖의 나무는 추위에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하면서도 앞쪽엔 따뜻함이 있는 군고구마가 놓여 있다. 내담자 B는 울타리 안과 밖에서 대극의 상황을 모두 표현하고 있었다. 울타리로 안과 밖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울타리 밖은 자신은 관여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울타리 안은 춥지만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3. 내담자 C의 모래놀이치료 장면



그림 14. 내담자 D의 사례

그림 13은 내담자 C의 모래놀이치료 장면으로, 5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이다. 내담자 C는 자신의 꿈을 향해 배움을 즐기며, 20대부터 계획해 온 꿈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과거의 자신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 5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으며, 최근엔 운동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목적으로 바쁜 일상 일지라도 틈을 내서 다양한 운동과 취미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내담자 C는 부모 두 분 모두 위암과 폐 선암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갖고 있었고, 내담자가 4살 때, 집안에 도둑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 그림 13을 보면, 자신과 가족을 모두 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은 욕조에서 행복한 표정을 하는 눈사람을 택했다. 서 있는 눈사람이 아니라 앉아있는 눈사람을 택한 이유로, ‘자유롭게 보여서’라고 말했다.

옥조를 보면, 물을 푸른빛의 큐빅으로 표현했으며, 눈(snow) 또한 반짝이는 진주로 모래상자 전체에 흩뿌려놓았다. 자세히 보면, 옥조 근처에 따뜻한 커피와 아로마 향초 2개를 가까이 두었는데, 그것들은 본인이 마시는 커피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향이라고 말했다. 내담자 C는 자신을 물과 따뜻한 커피와 향초 옆에 두었지만, 다른 가족은 북극곰과 함께 두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는 사라지게 되더라도 물이든 눈이든, 바람에 불어오는 좋은 향기로든, 항상 가족들 옆에서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물과 진주를 모두 반짝이는 대상으로 선택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가족들은 자신처럼 녹거나 다른 것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북극곰과 함께 안전한 곳에 있으며, 자신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내담자 C는 자신이 가족 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했고, 자신 외의 가족들 옆에 북극곰을 앉힘으로써 안전에 대한 무의식적인 강박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눈사람 곁에 눈과 물 그리고 불을 함께 두었고, 빛나는 진주와 큐빅으로 표현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통합하고 극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담자 C는 가족과 자신을 모두 눈사람으로 상징하며, ‘나처럼 가족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모습으로 ‘회귀’ 될지라도 빛나는 새로운 존재로 늘 함께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 내담자 C는 삶과 죽음의 대극이 서로 통합되고 연결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자기표상인 눈사람의 상징은 자기실현, 즉 개성화 과정의 상징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림 14는 내담자 D의 예술치료 프로그램 중, 모래놀이치료 회기에 표현된 가족 눈사람 상징이다. 구우면 99% 은(silver) 함량을 가지게 되는 은 점토로 눈사람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은 점토(silver clay)는 소재 특성상 따뜻한 체온에 표면이 빠르게 건조되는 특성이 있다. 은 보석은 대개 빛나고 아름답게 표현되지만 은 점토(silver clay)가 예술치료의 표현 매체로 사용될 경우, 소재 특성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무의식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와 상담에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내담자 D는 30대 후반의 청년 CEO이다. 아빠와는 사이가 좋았지만, 엄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내담자 D는 약 5분 동안 멍하니 모래를 바라보며 계속 모래를 만지작거렸다. 모래 전체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가르고 모으기를 반복했으며, 마지막엔 모래상자 가운데 산을 표현했다. 그 산에 아빠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엄마와 언니를 산 아래에 두었다. 내담자 D는 모래를 만지면서 무척 부드럽고 매끄럽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참여자들처럼 눈사람을 매끄럽게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눈사람 표면에 금이 갔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그 모양이 서로 갈등으로 상처받은 가족의 현재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눈사람의 거친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내가 광내기 작업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그게 진짜 모

습일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했다. 내담자 D는 모래놀이치료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평소 자신과 아빠는 언니와 엄마를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항상 모든 면에서 앞서 간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가, 4명이 다 함께 천천히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내담자 D는 모래놀이치료가 회기에 포함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면적인 추함이 결코 추하지 않으며, 자신의 창조적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표현은 서로 다른 극이 진정으로 통합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어릴 적 동심을 대표하는 눈사람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이다. 눈사람은 사람들에게 순수의 정서이자, 초월, 회귀의 상징이었다. 눈사람은 긍정과 부정, 양면적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깨달음과 변형의 상징이었다.

눈사람은 사람의 형상 즉, 자신들 또는 누군가와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창작과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유년기에 만드는 눈사람은 녹아서 사라지는 두려움이 포함되지만, 성인이 될수록 눈사람은 두려움을 직면하여 받아들이 수 있는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눈사람은 더 이상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반짝이는 회귀의 상징이었다. 눈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회귀로 인식하는 것은 무의식을 인식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Jung(1964/2016)은 인간 내면에 가진 원형인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를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려는 노력을 개성화 과정, 즉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보았다. 눈사람은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 눈사람은 제일 작은 눈덩이가 가운데 중심이 되어 점점 그 외곽으로 눈을 굴리거나 덧대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게 된다. 눈사람의 이러한 입체적 조형 과정은 가운데가 중심이 되어 연결되는 또 다른 형태의 만다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의 눈사람이 녹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자기(Self)의 유실 또는 손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유연한 자기(Self)의 회복 또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실현을 향한 전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눈사람은 생(生)과 사(死)를 연결하고, 대극을 통합하는 상징이다. 어디에서든 다른 존재로 영생(永生)하는 자연 대순환의 상징이면서,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요소에서 나타난 눈사람 상징을 고찰해보았다. 눈사람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눈사람의 반복되는 자연 순환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반영하고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식은 의식과 반대되

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바탕이 되고, 서로가 이해될 때라야 비로소 통합된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게 마련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대극을 직면하여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자기실현의 과정 즉, 개성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눈사람의 상징 이해는 심리상담 및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개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눈사람 만들기 틀을 이용해 귀엽고 재밌는 형태의 인위적인 작은 눈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겨울왕국’의 엘사, 올라프 등 디즈니 캐릭터를 눈사람으로 만드는 등 둥근 눈덩이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눈사람 만들기 퍼포먼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원과 구의 형태로 대표되던 눈사람의 표현이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표현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점을 다루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의 또 다른 내면 표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요즘 세대는 실제 오감을 통한 경험보다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즐기고 있다. AI 딥러닝을 통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깊게 다가와 있다. 애니메이션에 표현된 눈을 가능한 자연 현상 그대로 표현되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점은 눈이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가상현실, 확장현실 등 점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징연구는 앞으로 후속 연구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상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 눈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후 위기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기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인류의 삶에 ‘편함’과 ‘불편함’이라는 대극적 삶의 요소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대극을 통합하는 과정이자, 자기(Self)를 실현하는 하나의 실천적 과제로 이해되어, 자연환경과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노력이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먼 미래 세대들이 눈사람을 디지털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 김남예 (2023). 상징으로 보는 세상. (주)창비교육
- 김용중, 김용철 (2012). 원에 표상된 합일적 상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1), 107-118.
- 김상훈 (2016. 8. 24.). 변경섭, 소설집 ‘눈사람도 사랑하네’ 출간. 일요신문. <https://www.ilyo.co>.

kr/?ac=article_view&entry_id=198754

- 나지영 (2008). 우리나라 색채의 상징성과 그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2), 283-292.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 (2016).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 민중서림 편집부 (편) (2016). 엡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 문복희 (2020). 시조(時調)에 나타난 백색 이미지 연구-구름, 눈, 새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6, 213-234.
- 문현영, 한유진 (2016).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성인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놀이치료연구 20(1), 47-67.
-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예림.
- 박옥규 (1983). 古時調에 나타난 白色이미지 攷. 논문집, 3.
- 박현주, 나지영 (2010). 흰색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2), 193-201.
- 변경섭 (2016). 눈사람도 사랑하네. 예육.
- 오강남 (2004). 도덕경. 현암사
- 유미 (2014).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눈 표현 분석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0(4), 170-188.
- 이부영 (2015). 분석심리학이야기. 집문당.
- 이부영 (2019). 노자와 융. 한길사.
- 이부영 (2021).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 임현규 (2023). 한자 원리와 개념으로 풀이한 노자 도덕경. 파라아카데미.
- 장미경 (2022).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정대철 (2013). 노자독법. 안티쿠스.
- 조형연 (2004). 기독교 영성과 운동주의 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선일 (2014). 한국문학에 나타난 눈(雪) 이미지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28, 301-337.
- 최승호 (1996). 눈사람. 세계사.
- 하빛나 (2019). 운동주시 『눈오는 地圖』에 나타난 계절의 상징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5, 131-158.
- 한영선 (2022). 시조에 나타난 눈(雪)의 이미지와 주제별 양상 연구. 국제어문, 94, 251-274.
- 함기석 (2017). 고독한 대화: 제로(0), 무한(∞), 그리고 눈사람. 난다.
- Allan T. (2015). 상징을 찾아서: 상징을 찾아내기 위한 첫걸음 (김낭예, 조현용, 한정연, 공역). (주)도서출판 하우. (원서출판 1946)
- Ammann, R., Kast, V., & Riedel, I. (2021). 내면의 그림 : C. G. Jung이 분석심리학적 치료를 위해 가시화한 내면의 이미지들 (박경희, 역). 뮤진트리. (원서출판 2018)
- Aniella, J. (2012).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 역). 집문당. (원서출판 1961)
- Cooper, J. C. (2007).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역). 까치글방. (원서출판 1978)
- Daily Herald (2019. 12. 4) McHenry County museum celebrates 50 years of TV's 'Frosty the Snow

- man'. 데일리 헤럴드 <https://www.dailyherald.com/submitted/20191204/mchenry-county-museum-celebrates-50-years-of-tvs-frosty-the-snowman>
- Dedieu, T. (2020). 눈사람은 죽지 않아 (박언주, 역). 딸기책방. (원서출판 2019)
- Jung, C. G. (2016). 인간과 상징 (이부영, 역). 집문당. (원서출판 1964)
- Jung, C. G. (2017). 융합의 신비 (김세영, 정명진, 공역). 부글북스. (원서출판 1954)
- Jung, C. G. (2023). 심리학과 연금술 (정명진, 역). 부글북스. (원서출판 1943)
- Riedel, I. (2004). 색의 신비 (정여주, 역). 학지사. (원서출판 1999)
- Sia. (2017). Snowman[Song]. Snowman[Album]. Monkey Puzzle/Atlantic.
- The Rabbit Hole. (2018. 12. 19.). Frosty the Snowman(1969)-Full Movie[동영상]. YouTube. <https://youtu.be/bSzBBK8gC6c>
- Von Franz, M. (2022). 연금술: 연금술의 상징주의에 대한 입문 (이상익, 역). 한국융연구원. (원서출판 1980)

투고일 : 2023. 05. 31
수정일 : 2023. 07. 17
게재확정일 : 2023. 08. 11

Snowman: A Symbol of Self-Realization and Unity of Opposites

Kyunghee Ma^{*}

Jihyun Sin^{**}

<Abstract>

This literature review delves into the symbolic aspects associated with snowman. The study examines the symbolism connected to bot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nowman and the eventual melting of snow. Furthermore, it explores how snowman can be seen as representations of life's patterns and natural processes. Particularly, the analysis scrutinizes snowman as integrative symbols within a broader dramatic context. The research also reveals how the cyclical processes of nature parallel the concept of individualization, leading to self-understanding and Self-realiz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mbolism of snowman, shedding light on their relevance in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Keywords : symbolism, snowman, life cycle, individualization, Self-realization

* Lead author, Doctoral Course Student, Literature and Arts Psychotherapy, Konk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Literature and Arts Psychotherapy, Konkuk University (kidedu@naver.com)



Copyright ©2023,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Making a snowman is one of the memories that represent the innocence of childhood. In childhood, people rolled snow to make a big snowman, or make their own big or small snowman. To make a snowman, the snow accumulated on the ground should be collected or rolled to make it into a bigger and bigger snowball. After making a large snowball to be placed on the bottom, a smaller snowball is carefully placed on the large snowball to complete a snowman. Making a snowman inevitably includes the creative process of making a stereoscopic spherical shape using snow. Making a snowman is a process of creation and a play to enjoy the process per se.

Dora Kalff gave birth to Sandplay therapy based on the premise of Jung's concept of 'active imagination', and viewed that through 'active imagination', humans would become able to observe the unrecognized feelings and ideas flowing freely in their inner side, and the unconscious contents hidden in their inner side could be made conscious(Jang, 2022). As such, active imagination, which is important for the exploration of the inner side, takes place in reality as actual play or is used in the treatment scene.

Snowman were mainly expressed in white in art therapy or Sandplay therapy scenes. White connects affirmation and denial, and life and death, and has an ambivalent nature of meaning brightness and self-discipline while symbolizing hardships and adversity at the same time. snowman mainly appeared in the form of a circle or sphere, and Cooper (1978/2007) viewed circles as a universal symbol, which means completeness, wholeness, simultaneity, and original perfectness, Self-fulfillment, the Self, non-manifestation, infinity, eternity, the connection of space and time, that is, timelessness in which the beginning and the end are connected, and spacelessness in which the top and bottom are connected. In a study that analyzed the unified worldview represented by circles, Kim & Kim (2012) stated that humanity represents metaphysical concepts such as transcendence, unity, return, and Self-realization through the shape called circle. Jung (1964/2016) explained circles (or spheres) as a symbol of the Self, and said that the Self represents the whole of human mental phenomena, that is, holism, encompassing bot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Rhi (2021) views that the infinite possibility of mental activity is in unconsciousness, and explains Jung's viewpoint as realizing one's entire mind by making use of his/her unconsciousness. The personality mentioned by Jung is the same word as the Self and means the person himself/herself. That is, Jung's Self-realization is 'the process of becoming the Self', and Self-realization or individuation is the process of self-knowledge. The meaning of the process of knowing the contents of unconsciousness and raising consciousness of them is similar to that of 'enlightenment' in Korean. Miyuki, a Buddhist monk and Jung analyst, said that enlightenment is not self-transcendence or self-negation but is in an effort to constantly

integrate the contents of unconsciousness.

Snowman repeat being made and disappearing in our space in the form of spheres and circles. Cooper (1978/2007) said that circles are round shapes and spherical shapes and extinguish time and space, but they also mean return. As such, the properties of snow that makes snowman include both the opposite elements of extinction and return. An important symbolic meaning could also be found in the climatological phenomena of snow.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the fairy tale of Thierry Dedieu (2019/2020), a writer of “Snowmen Live Forever” is revealed as a being that melts so that its shape disappears, but does not become ‘absence’, which is disappearing completely, and does exist anywhere, can appear as anything, and can return someday. The view of life and death as such that appeared in the fairy tale also appears in Chapter 2 of Lao-tzu's 「Tao Te Ching」. With regard to Chapter 2 of 「Tao Te Ching」, Rhi (2019) said that opposite poles were not understood as opposing two poles but were understood as relative things with one root and an approach to the whole mind that corresponds to the 'the Self' of analytical psychology, that is, as a process of Self-realization. Jang (2022) said that the opposite poles were originally in the state of one, but since one pole becomes conscious of and the other becomes unconsciousness, the ego should strive to recognize the unconsciousness that has not been conscious of without suppressing it.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symbolism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nowman in Chapter 2, examine the symbolism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as a cultural element in Chapter 3 thereafter, and examine the symbolism of the snowman concretely through cases of Sandplay therapy in Chapter 4. Exploring the symbolism of the snowman, which appears as various cultures at various ages, can help understand the inner side of human being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messages given by unconsciousness to raise consciousness of them so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tools for introspection and Self-realization. The process of raising the consciousness of unconsciousness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an effort to approach the unity of opposites and Self-realization. By examining the symbolism of the snowman, this study can help individuals understand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ir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and is intended to help them explore and understand their inner side by themselves to achieve Self-realization.

II. Characteristics of the Snowman

A snowman undergoes a series of creative processes to make snow into a human form. In Chapter 2, the various symbolic meanings of the color, shape, and attributes of a snowman will be examined.

1. Color of the snowman: white

Our ancestors expressed the meaning of very white as pure white(純白), white essence (白精), and real white(精白) (Park, 2007), and the color of snow is pure white. According to Kim (2023), “희(Hee)” in “희다(Hee-da; white)” was written as “H bottom ah(ㄸ)”, which meant the sun, in the old Korean language. She said that white in this case was colorlessness, the color in the state of nature, and our ancestors wore clothes with the colors in their states of nature because they believed that living following the laws of nature without opposing nature was the right life. The baekseolgi (steamed white rice cake), which is placed on the table when a baby healthily greeted its 100th day or 1st birthday after he/she was born, is white and this was said to wish the baby good health and longevity with a pellucid clean and sacred food.

Park & Na (2010) found that the use of white in Korea has been popular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which was long before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when ‘Wei Zhi(魏志)’ and ‘Dongyi Chuán (東夷傳)’, which are ancient Chinese literature, are examined,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people wore white clothes as their everyday clothes, and were called the ‘white-clad race.’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Na (2008), the reason why our ancestors used white the most frequently in their non-official circles despite that white was constantly banned for being contrary to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was that white was a sacred color that meant brightness and the images of scholars were projected to white because white was the image of scholars who were practicing while cultivating themselves. She also said that Koreans wore white clothes as mourning clothes because white clothes, which were bright colored clothes, contained a shamanic belief that they would illuminate the road to Hades of the dead and would be suitable for the pray for the spirits of the dead to live eternally in a good world.

Ingrid Riedel (1999/2004) viewed white as a color originating from the fundamental experience of something that has not yet been stepped on, such as a snowy white earth, a white paper that has not been written on anything yet, or a freshly blooming white flower that has not yet been touched, for example. Therefore, she said that all these things meant virginity and chastity implicit in white. Based on Ingrid's explanation, in our experience, when we see white snow piled up overnight that has not been stepped on or touched by anybody, we would leave our footprints for the first time or gather handfuls of snow with our hands to make a snowman, or leave traces. Such facts can be interpreted as fundamental experiences given by our unconsciousness. Ingrid Riedel (1999/2004) stated that white has the meaning of 'beginning' and has a special position among all colors as an achromatic color, the limit of colors, and the wholeness of undivided lights. White is an absolute color and expresses the beginning and end, emptying and filling, and the unity of them. It is a symbol of simplicity and naivety with the meaning of beginning, while at the same time involving

negative symbols such as something that cannot be defined yet and shadows. White is a color that involves everything, and means potential, opening, and freedom. White has the symbolism of light, is the color of enlightenment and illumination, and also means the resurrection and completeness. White is also a symbol of completeness and purification. As an example, the lotus flower overcomes the dirtiness in the mud and blooms as a white flower, and the lotus flower as such was said to appear as a symbol of the resurrection in Egypt, Buddhism, and Hinduism. Park & Na (2010) viewed that white plays a role like that of a neutralizing agent. White makes the overall mood of the colors used together with white look brighter, or influences the impression of the entire colors depending on the position where it is used. White is a harmonious color that matches with any color, but is also a color that has so strong an influence that it would change the feeling of the entire colors.

Among various climate-related natural objects, snow is easily associated with pure images thanks to its unique clean white color (Cha, 2014). However, to Koreans who were living with farming as a main job, winter was a very long and harsh season, and snow that falls in winter was a symbol of difficulty when it appeared in literature, and white was also used as a color for hardships or adversity, and sometimes as a negative color that covers everything. (Han, 2022). Park (1983) viewed white as the color of emptiness, such as futility, vagueness, and lethargy, and Moon (2020) said that white had the ambilaterality to symbolize both positive images of virginity, purity, sanctity, and fullness, and negative image of deficiency and hardships.

As shown above, it can be seen that white connects affirmation and denial, life and death, and has the ambivalent symbolism meaning brightness and mental cultivation while representing hardships and adversity at the same time. As such, the white color of the snowman can be understood as the color of beginning, harmony, and regeneration that is being revived from death that seems to be an end. White is also the color of expression of unity that includes different opposites.

2. The shapes of snowman: circle and sphere

Ruth Ammann et al. (2018/2021) viewed the picture of circles and near-circular vortices as symbols of the beginning of time, infinite without beginning or end, and Allan(1946/2015) said that the circles have the meaning of the universe, circulate without any beginning or end, and symbolize completeness, perfection, or eternity. Also, since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is at the same distance from the center, circles mean 'equalness', symbolize 'equal command' like King Arthur's round table, and sometimes mean 'inclusion' and 'protection.'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Kim & Kim (2012), circles symbolize God, the fundamental opposite of human beings, and circles are a symbol of the union of God and

human beings and return. Viewing circles as a symbol of union means that the circles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rough which the unconsciousness in the inner side of humans is voluntarily represented as consciousness, and involves the ultimate totality of life.

Analytical psychology helps people express emotional problems or affects in various ways such as play, art, and movements thereby activating their own self-healing power (Moon & Han, 2016). Jang (2022) mentioned that the understanding of Jung's analytical psychological concep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ymbols emphasized in Sandplay therapy, and emphasized that in analytical psychology, unconscious things, especially archetypes, make images, and the images are projected on symbols. She said that the archetypal energy as such is projected and revealed through art, dreams, Sandplay, etc. and that the Self, which is the central archetype among archetypes, is the source and root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that exist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he also viewed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as representing the dynamic aspect of the archetype of the Self as a process of overcoming individuals' difficulties, and differentiating individuals' uniqueness in terms of potential. She said that the process is integrated into a symbol through the confront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Rhi (2021) stated that Jung's process of Self-realization, that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unconsciousness, centering on the dreams of numerous patients and healthy people and that what is important in Self-re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is the recovery of consciousness. She also viewed that Self-realization is possible without being analyzed and said that it is because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is an archetypal process inherent in all human beings. She viewed that since everyone was born with potential, anyone can realize his/her whole; provided that, her view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one's self-consciousness should have an attitude to pay attention to creative messages coming from his/her inner world and introspect himself/herself.



Figure 1. White sponge ball



Figure 2. me, the space of return



Figure 3. Self-representation-snowman

[Figure 1], [Figure 2], and [Figure 3] are self-exploratory group art therapy scenes in which a snowman was drawn as self-representation through the doctoral course object relations class. The tool chosen first to express self-representation was a 'white sponge ball'. The white sponge ball was a symbol of snow with which a snowman could be made. The texture was expressed by smearing the sponge ball with paint so that it could be felt, and the circle was expressed large by gradually expanding it outward from the central point dotted with the paint first. What was drawn first on the drawing paper was a circle named 'me' in the right top and it meant 'my own universe'. The sponge balls smeared with paint were not thrown away but were used to express a snowman, and the space of 'me' was a place where the sponge balls stayed for a while, that is, a space of return. It was expressed as a place where sponge balls, which expressed the 'world' of self-representation, that is, 'snow' was made, and a place of return to go back after coming down to the 'world' and being used. The other colors that were added to the white snowman to express the texture were representing various meanings of life such as 'passion', 'curiosity', 'pain', and 'failure'.



Figure 4. Sponge Ball snowman



Figure 5. Expression tool selected first

[Figure 4] shows spheres remade into snowman after being used as a picture of self-representation, which were in a way the figure of a family expressed at the level of life experience while being the figures of many inner sides of oneself at the same time. Both the planar snowman expressed on the drawing paper and the three-dimensional snowman are the figures of many inner sides of the Self, and can be understood as various archetypes - animus, shadow, persona, etc. - meant by Jung. The snowballs in [Figure 5] were understood as a tool symbolizing pure white snow that had not yet been used. On looking at [Figure 4], it can be seen that the snow falling from the sky is white on the center, and both the color purple representing the ground and yellow used for snowman were also expressed. The meaning involved in the foregoing is that although all snow looks pure white, it expresses conflicting feelings such as pain, conflicts, hope, growth, and happiness that are invisible to people's eyes, and contains the wish that all life experiences that might be opposite to each other will be integrated into one and expressed as a snowman.

Rhi (2021) stated that Jung said that everything in the mandala has entered relations with the

center, and order is established through the relations, and at the same time, the relations make people feel the center of personality that describes the source of energy. Jung viewed the mandala as the fusion of all the opposites in yin(陰) and yang(陽)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person at the center of the mandala is viewed to feel and think not as small 'I' but as 'the Self', include the periphery of the circle in the 'Self', and embrace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 Self', that is, the opposites that constitute the entire personality within it. According to Jaffe Aniella (1961/2012), Jung realized that the mandala returns to a single point, that is, the central point. He said that the mandala is the expression of all paths, the paths towards the center, that is, towards individuation (Self-realization). The snowman expressed in [Figure 3] and [Figure 4] are in the same context as the circle at the center of the mandala, which is related and connected to all peripheries, and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the work on the unconscious inner side that starts from the center and gradually grows outward in size.

3. Attributes of the snowman: circulation and creation of nature

When the dictionary meaning of snow is examined, it can be seen that snow is white crystals that fall to the ground as water vapor condenses in the upper layers of the atmosphere when the temperature is below 0°C (Doosan Donga Librarian's Editorial Department's edition, 2016), and the white crystals that fall to the ground when water vapor floating in the air is frozen as it meets a cold aura (Minjungseorim editorial department's edition, 2016). The crystals condensed in the atmosphere are turned into snow and fall to the ground, and the form of snow is changed back to water at warmer temperatures. The water is then vaporized back into the atmosphere.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being related to the greater circulation of nature, and in Chapter 40 of 「Tao Te Ching」, Lao-tzu stated, 反者(Fǎn zhě), 道之動(Dào zhī dòng), 弱者(Ruòzhě), 天下萬物生於有(Tiānxià wànwù shēng yú yǒu), 有生於無(Yǒu shēng yú wú). When the interpretations of translators are examined, it can be found that Lim (2023) interprets the foregoing as indicating that return is the movement of the Tao, weakness is the action of the Tao, all things in the world were created from existence, and existence was created from nothing. Jeong (2013) explains that Lao Tzu's Chapter 40 states that returning to the origin is the movement of Tao, and the weak is the use of Tao, and that the returning of all things to Tao after all is an inevitable law and Tao achieves the true strong with the soft and the weak without using the strong. In addition, he explains that all things in the world were created from existence (有), and existence (有) was created from nothing (無).

Oh (2004) interprets the original text of Chapter 40 of 「Tao Te Ching」 as indicating that Tao is the root of operation of all things, but it also calls on all things by itself at the same time. By calling on all things, Tao enables all things to exist and furthermore enables them to exist as individuals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In this sense, it was said that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ao could be said to be creativity. Rhi (2015), who compared the ideas of Lao-tzu and Jung, said that Jung indicated that Lao-tzu's totality of the union of opposites was in the same context with his process of individuation. Jung viewed individuation as a constant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and said that individuation was the way for the ego, which had been the center of the narrow consciousness, to approach the center of the entire mind including bot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by always being renewed.

The process of circulation of snow (雪) is 反者 (Fǎn zhě) 道之動(Dào zhī dòng) said by Lao-tzu, that is, returning, and can be interpreted as the circulation of Tao. Snow that melts, flows as water, and even becomes lighter as steam can be interpreted as the weak(弱者) said by Lao-tzu. For 道之用(Dào zhī yòng), that is, the greater circulation of nature, steam is turned into snow, and then into water, and returned back to steam. Snow (雪) in the creative process is used(用) in the greater circulation of nature, which surrounds us, human beings, and is repeatedly created into the snowman, followed by disappearing. The snowman's self-representation image expressed earlier in [Figure 3] could also be understood as creativity,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ao. From the viewpoint as such, it could be understood that snow was circulating in nature, including humans, and was always newly created, which was the way to Self-realization approaching the Self, the center of the entire mind. Nature's circulation and creative characteristics will be examined in more detail in the snowman symbol that appeared as a cultural element.

III. The Symbol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As a Culture

1. The symbol of the snowman

In Yoon Dong-ju's poem "Snowing on the Map," which was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poems "Sky, Wind, Stars, and Poems," 'snow' represented a negative reality, and the poet resolved the conflict by expressing the negative reality as the cycle of the seasons. The symbolic structure as such well shows Yoon Dong-ju's poetic attitude overcoming trials, and his thoughts on the cycle of the seasons appear extensively in Yoon Dong-ju's prose and poem written at the time (Ha, 2019). In this poem, snow is symbolized by the cycle of the seasons and resolves the conflict, which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and is the aspect of finding the original human figure while the opposite elements of divided human beings that require healing -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 ego and shadow, persona and anima/animus-are integrated. The perspective of the loss, orientation, and recovery of self-identity shown in Yoon Dong-ju's poetry provides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religion, that is, the inner appearance, shown in Jung's process of individuation (Jo, 2004).

There was also a cultural element that provided the meaning of the symbolism of snow when the animation CG of snow, a natural phenomenon, was analyzed. It is the animation 「Frozen」. The original work of 「Frozen」 is 「The Snow Queen」, and snow appears a lot in the animation. Yu mi (2014), who studied the mode of expression of snow that appeared in the animation 「Frozen」 analyzed that there was no snow simulator that simulated the natural phenomenon as it was. After the conflict between Elsa and Anna, the scenes of snow continue throughout the entire scenes, and the changes in the condition of the snow are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snow expression shown in 「Frozen」. Snow is a sort of small ice grains that have state changes to become water when they melt and become vapor when they evaporate, that is, they should become water or vapor depending on the ambient temperature or heat. Among the scenes appearing in 「Frozen」, there is a scene where Olaf, the snowman, is melted by the heat of the fireplace.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ppearance of melting of Olaf in this scene is an animation effect that makes Olaf appear as if he is melting rather than a realistic simulation so that it can be hardly viewed as the result of a simulation that describes natural phenomena in detail (Yu mi, 2014).

Studies as such that discussed technical elements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in a symbolic sense. In the field of animation where movie contents are produced, the fact that snow, which expresses the inner conflict of the main character, is wanted to appear more as a natural phenomenon is meaningful in that it makes snow and the symbol of snowman more extensive in understanding the inner side of human beings. The fact that the symbol of nature that appeared in the animation can be also expressed as a symbol that delicately deals with the psychology of the main character is very encouraging.

2. The symbol of a snowman that appeared as children's literature and an element of culture

Snowman Live Forever written by Thierry Dedieu (2019/2020) has been translated into a children's fairy tale titled “Snowmen Live Forever” in South Korea.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the fairy tale is expressed as a being that figures out new games better than anyone else, always entertains his friends, and tells stories interestingly, as if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he does not know. Then, one day, the snowman says he wants to learn 'swimming' all of a sudden. The friends say it doesn't make sense, and they cannot understand why the snowman wants to swim as he will melt when he gets into the water.

As shown in [Figure 6] and [Figure 7], the friends in the fairy tale are sad about the fact that the snowman turned into ‘water’ and completely disappeared. However, the conflict begins to be resolved when Teacher Big Bear informs them that when a snowman melts, he becomes water and flows into the sea. The friends in the forest go to the sea to meet the snowman, but they cannot find him easily. At the moment when they were frustrated, they

meet a snowman in the form of a cloud in the sky. The snowman says he will return when it gets cold (Dedieu, 2019/2020). In this fairy tale, the snowman disappeared from the world of his friends, but is in a different shape, the form of a 'cloud' in another world [Figure 8], and promises to 'return' to his friends when the season gets cold again.



Figure 6. A scene where the snowman is melting



Figure 7. A scene where the snowman disappe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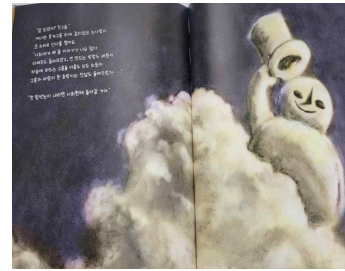


Figure 8. The snowman that became a cloud

<https://blog.naver.com/agtotoro79/222963980021>

In this picture fairy tale, a conflict situation of opposites where snow melts when it meets water is made. However, the tension begins to be eased as the big bear, who can be viewed as a wise man, tells them how to solve it. The tension is completely relieved as the snowman promises to 'return'. Cooper (1978/2007) stated that water, sea, river, and spring water are the source of all possibilities, the root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 grave while being related to the urmutter, birth, femininity, the womb of the universe, abundance and regeneration, and life at the same time. In the fairy tale, the snowman turned into water, became the sea, and then was changed into a cloud. Then, he said he would go back to being a snowman. Rhi (2021) said that 'the Self' would sometimes appear as light, sometimes as fire, or wind and water, and Jung said that the Self is a complex thing. Self-realization is a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a personality, and the transformation is accomplished by the turning of unconsciousness into consciousness and all studies of Jung that studied unconsciousness indicated that the foregoing i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Self-realiz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snowman into various forms is also in the same context as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3. The symbol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the song

「Frosty the Snowman」, an animation film of American CBS aired in 1969, is a Christmas short TV animation. Romeo Mueller wrote the original story and the song Frosty the Snowman composed by composer Steve Nelson & lyrics Walter 'Jack' Rollins was the original draft in 1950 (Daily Herald, 2019). It is an animation of about 25 minutes(2018), in which the snowman Frost and the girl Karen become to set off to find the North Pole

together to prevent the snowman from melting. They ride together in a refrigerated boxcar to prevent the snowman from melting, but Karen becomes to catch a bad cold. The snowman who entered the greenhouse for Karen as such becomes to melted in the greenhouse due to the magician's enticement.



**Figure 9. The scene where
the snowman melted into water**

<https://youtu.be/bSzBBK8gC6c>



**Figure 10. The scene where
Karen is shedding tears**

In the animation of 「Frosty the Snowman」, the sadness is maximized when the snowman melts and Karen cries [Figure 9]. When the bright song 「Frosty the Snowman」 is played as a variation with a slow tempo, the sadness reaches its peak so that the viewers experience the situation of opposites. At this point, Santa Claus appears so that the conflict that reached its peak is resolved as he tells Karen that the snowman will never disappear, and that he will be turned into Christmas snow so that he will be eternal. Santa Claus comforts Karen saying that the Christmas snow never disappears and appears as spring, summer rain, and cold winter wind. At that time, a scene where Karen drops a drop of her tear on the ground appears [Figure 10], and the tear is sent outside together with wind by Santa Claus so that the conflict is completely resolved as the snowman is rebuilt. In snowman Live Forever written by Thierry Dedieu (2019/2020) too, the snowman is expressed as a returning being, and it is expressed that he returns as beings in various forms. In the animation 「Frosty the Snowman」 too, the snowman was revived again in a different form from the teardrop shed by Karen.

「Snowman」 sung by Sia(2017), an Australian singer-songwriter with a unique tone, is popularly known as it was used as background music for TV commercials in South Korea. In this song, the story of 「Frosty the Snowman」 is the background of the lyrics, but Santa Claus does not appear in Sia's song. Sia's song follows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rsons believed to be the snowman and Karen.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 will catch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A pudd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m Mrs. Snow, 'till death we'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and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yeah, My snowman and me baby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Who'll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Who'll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In 「Frosty the Snowman」, Santa helps the snowman and Karen, but in Sia's song, only 'Snowman and Me' appear. Frustration and hope are repeated throughout the lyric. An aspect of opposites appears in which Karen is afraid of the sun saying, 'Hide from the sun', but tries to overcome the fear while singing 'Don't you fear the sun'. Opposite emotions appear again, she says, 'We'll have some fun',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discouraged saying, 'Who'll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Sia's 「Snowman」 can be understood as exchanging conversations with Karen, but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personification of the inner unconsciousness said by Jung. Jung (1964/2016) regards the ambilaterality of unconsciousness as important, and views that both the bright side and dark side of everything personified in unconsciousness, that is, shadow, animus, anima, and the Self should be considered. Human beings must introspect the ambilaterality of the Self to integrate the inner opposites within themselves so that they do not lean to either extreme. Jung says that this is never an easy process. 'Snowman and Me' that appeared in Sia's song were the process of making the unconsciousness into consciousness that integrates the opposites, that is, the image of the Self going towards Self-realization,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oad is never easy due to the repetition of continuous conflicts.

Jung (1943/2023) viewed that the reason why people try to integrate the numerous opposites that constitute their mind and achieve totality is that their Self, which is the central element of their mind, works in the inner side of them. Jung found many symbols regarding the Self and Self-realization in alchemy and Jung (1954/2017) said that alchemists made efforts to

combine opposites, and made efforts not only to visualize them, but also to express them simultaneously. In Sia's song, 'Sun', that is, the sun appears. They had to avoid the sun, and they were encouraged to face the sun and not be afraid of the sun. Marie-Louise von Franz (1980/2022) said that the sun is an aspect of consciousness, partly connected to the ego, and partly connected to the Self. She said that since the sun implies the principle of consciousness that can embrace opposites, it is open to unconsciousness on one side but can be one-sided and destructive as a 'closed system' on the other side. In 「Mysterium Coniunctionis (the mystery of conjunction)」, Jung (1954/2017) describes the sun as an image of spiritual divinity, and said that it means that the sun is itself on one hand, but is an aspect of the ego on the other hand. Jung said that the ego is identical to the self to the extent that it is a tool for Self-realization for the self, and only the ego-centered inflated ego is opposed to the self. The ego of the individuated person will be the manifestation of the self, which is characterized by a great openness to the unconscious, which functions like a legitimate sun. Marie-Louise von Franz (1980/2022) said that the ego has a dual attitude toward the unconscious, and that it reveals itself by constantly making efforts to approach the unconscious. In Sia's 「Snowman」, a snowman who is turned into a puddle by the sun or melted and loses his legs and ears is described. Even so, he expresses that he will never leave, and that he will be frozen until he dies. Recognizing the elements of opposites can be understood as a journey of consciousness approaching unconsciousness. The “snowman and I” appearing in Sia’s “Snowman” are not separate beings, but can be thought of as the process of growth that an individual goes through internally, that is, the self that is heading toward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Jung said that the ego is identical to the Self to the extent that it is a tool for Self-realization for the Self, and only the ego-centered inflated ego is opposed to the Self. He said that the ego of an individuated person should be the manifestation of the self, which is characterized by a great openness to unconsciousness, and functions like a legitimate sun. Marie-Louise von Franz (1980/2022) stated that the ego has an ambivalent attitude toward unconsciousness, and thus constantly makes efforts to approach unconsciousness thereby making the Self be revealed. In Sia's 「Snowman」, a snowman who is turned into a puddle by the sun or is melted so that his legs and ears disappear is described. It is expressed that nevertheless, he will never leave, and be frozen until he dies. Recognizing the elements of opposites can be understood as a journey of consciousness to approach unconsciousness. The “Snowman and Me” appearing in Sia’s “Snowman” are not separate beings, but can be thought to be the process of growth that an individual goes through internally, that is, the Self that is heading toward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4. The symbol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adults' literature

In his poem 「Snowman Exhibition」, Choi Seung-ho (1996) expresses that 'melting snowman are the purest masterpieces of man-made art on earth'. The words saying that the snowman that melts and disappears so that it cannot be exhibited is the purest masterpiece are a

paradoxical expression because a snowman melts immediately after being moved into an exhibition hall. The fact that the paradoxical viewpoint as such means the union of opposites was examined in the earlier literature. Cooper (1978/2007) said that the melting of snow symbolizes the softening of a stiffened heart. Hahm Ki-seok (2017), a poet who majored in mathematics, looks at the world through poetry proses that contain his own emotions and expressions. In his collection of poems and proses, he was singing about the infinite world, shapelessness (無相), and non-existence(無住).

You and I are essential shapes, which are not the subjects. The subject only flows and is not crystallized. Therefore, 'existence' is non-existence, and 'existence' is a ghost body of 'non-existence' that exists for a while. Therefore, non-existence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 'non-existence.' (Hahm, 2017, p. 156).

He was looking at the snowman as an infinite world in his poetry prose 「Snowman in the rain and moonlight」.

Entering into the world through language is eventually a fight to find the existence of humans and things that are in the face of death, their absent shadows, and the punishment to punish themselves with their own language, and that may be creation. We are all snowman melting between zero (0) and infinity (∞) (8), a progressive material that melts from the eyes to witness and remember our absence with our entire body (Hahm, 2017, p. 153).

Poet Hahm Gi-seok, who majored in mathematics, was matching himself with the snowman with numbers 0, 8, and infinity (∞) made by turning 8 sideways. The poetry prose of Ham Gi-seok, who recognizes himself as the same entity as the snowman, has a connection with Chapter 14 of Lao-tzu's Tao Te Ching. According to Oh Kang-nam's (2004) explanation, Chapter 14 of Tao Te Ching is speaking of the mystical transcendence of Tao. What is invisible even when it is seen is named Yí (夷), what is not heard even when it is heard is named Xī (希), what is not held even when it is held is named Wēi (微), and what cannot be revealed even with the foregoing three, the state where the three was united into one cannot be named because below it is not darker, above it is not brighter, and it is endlessly continued. Therefore, it is eventually explained as returning to the world of 'non-existence'. Lao-tzu's Tao(道) thought in the same context as the totality of mind mentioned by Jung, and Rhi (2019) said that every time Jung was talking about the totality of mind, which is the core of his theory, he presented Lao-tzu's Tao as a parallel instance of the Orient. He said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with the potential to realize the entire mind, and that is achieved through the conversion of unconsciousness into consciousness. As shown in the literature as such, it could be understood that Ham Gi-seok's poetry prose expresses the world with mathematic symbols while sharing the texture with the world of circulation that

infinitely turns and the journey of exploration toward the Self. In Byeon Gyeong-seob's (2016) collection of novels, 「A Snowman Loves Too」, the woman whom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loves says the following to the main character.

You are just like a snowman. When I was young, when it snowed heavily, I would make a snowman by rolling snow together with my older brother and put it up in the corner of the yard. You are like that snowman... snowman melt and freeze throughout the winter without doing anything, and then slowly disappear leaving no trace although they melt away quickly these days because it's so warm even in winter... You are like that snowman. Not only you are as such. I mean those people who can't do anything while living in the world and just watch and worry to get sick inside, and people like snowman whom nobody looks even when their whole bodies are exposed in the cold of winter. Of course, that is the case with me too. I found it so hard while I was living. In fact, I don't think I've ever lived my life according to my will. That's why I loved you, the snowman. Because I am a snowman just like you... I really loved you (p. 114).

In this novel, the main characters were passive people in life. However, the author made the snowman embrace each other and slowly melt into each other in the end although they viewed each other as subjects who could not do anything like snowman, and viewed each other as people who will melt and disappear. The author decorates the end of the novel by expressing as follows at the end of the novel.

As if they feel a pity for their bodies that melt like water slipping through their fingers, the two just looked at each other's sad eyes with a longing look. Soon, the place where the two were lying was soaked with water. Spring was coming (p. 114).

It can be seen that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Byeon Gyeong-seob's (1996) novel, 「A Snowman Loves Too」, was no longer despair, and became a symbol of hope called spring by melting down. Poet Kim Jin-gyeong said through her recommendation that Byeon Gyeong-seob's novel summarizes the tragic aesthetics with the word "snowman" (Kim, 2016). In his poem contained in Choi Seung-ho's (1996) poetry collection 「Snowman」, the poet expresses the phenomenon of melting of snowman as a phenomenon in which all materials that appeared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flow without staying.

Snowman's Way

The fact that snowman melt is / the fact that snowman burn,
The fact that snowman burn is / the fact that snowman are returning to ash,

Ash is water / White ash / Ash that cannot be whitened further is water

Stream / White ash flows / snowman flow into the river, into the sea, into the Milky Way
While playing water drums dung dung dung

Flowing is / returning,
Returning means not being able to stay anywhere / for long, (p. 27)

In his poem 「Snowman's Way」, Choi Seung-ho states that snow becomes fire, then ash, and the ash becomes water again. A rapid expression appears in Choi Seung-ho's poem indicating that water that cannot stay because it flows becomes an object identical to ash that can stay.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opposites, intended to express the greater circulation of nature, and infinity. This is connected to the concept termed 'transformation', and Jung (1954/2017) argued that the transformation in alchemy is rooted in the mental concept of value, and this value concept regarded 'transformed things' as being more valuable, more excellent, higher, and more mental. snowman are continuously transformed while experiencing more things and being integrated. The transformative attribute as such of the snowman can be inferred as the integration of the attributes of all archetypes of the Self-shadow, persona, anima, animus. Self-realization will begin from trying to make even the inferior function of the individual's unconsciousness in consciousness without suppressing it. Self-realization and the unity of opposites could be found in the various symbols of snowman that appeared as cultural elements.

IV. Snowman in Sandplay Therapy Cases

Based on the earlier literature review, understanding will be helped with clients' cases of the symbol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Sandplay therapy scenes. snowman appear in white at the Sandplay therapy site too. It can be seen that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client A's Sandplay therapy scene [Figure 11] was not made by mixing sand and water, but snow and snowman were placed in the sandbox using white clay separately. This is interpreted to have been made with the unconscious image and fundamental experience given by the unique color of white of the snowman.



Figure 11. snowman and snow of client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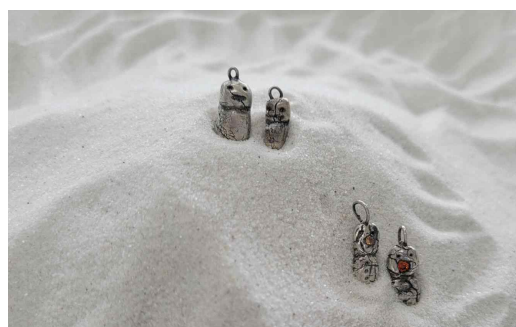


Figure 12. Case of client B

[Figure 12] shows a snowman that appeared in a Sandplay therapy scene, which is in the case of client B. Client B was in her late 40s and was a married woman who had been leading her family's livelihood by doing real estate-related work as a freelancer. Client B had been living with her single mother from when she was young because her parents divorced, and had fulfilled her responsibilities until her mother passed away due to complications of her diabetes while also taking care of the livelihood of her parents' home. Although she was born as the youngest child, she grew up playing the role of the eldest, and because of her family's financial difficulties, she gave up going to college despite that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with excellent grades, and jumped into the battle of life. When she participated in the session, she had frequent conflicts because she could not control her anger at the fact that her husband and her daughter were lazy in everything unlike her. Client B has been fulfilling her responsibilities for her duty as a daughter, parent, wife, and office worker. Although she had accumulated wealth by successfully investing in real estate and moving to increasingly better houses, her stress reached an extreme due to her family members' attitudes without any sense of responsibility unlike her, and because of frequent fights, she wanted to be independent from her family members and was even thinking about divorce. As shown in [Figure 12], the client built a fence from the right wall and paced a snowman and a snowed tree inside the fence. She expressed herself as a snowman, expressed snow with Styrofoam. It snowed inside the fence but not outside the fence. It was very cold inside the fence, but she said she was happy inside the fence because she had a warm fur scarf around her neck. While explaining the outside of the fence, Client B hesitated for a moment. "There is no life outside. The smell of roasted sweet potatoes wafts over the fence, but I cannot eat them, because if I touch them, I'll melt," she said. When looking closely, it can be seen that the tree outside the fence has lost all its leaves due to the cold, but in the front of the figure are placed warm roasted sweet potatoes. Client B was expressing the opposite situatio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fence. While clearly dividing the inside and outside with the fence as a boundary, she was perceiving the outside of the fence as a world she could not get involved in, and the inside of the fence as a cold but warm and safe place.



[Figure 13] Sandplay therapy scene of client C



[Figure 14] Case of client D

[Figure 13] is the Sandplay therapy scene of client C, a professional woman in her early 50s. Client C enjoys learning towards her dreams, and she has been living her life passionately, while practicing her dreams planned since she was in her 20s one by one. She said that in the past, she had a lot of stress due to her personality not being able to get along well with others, and she preferred to be alone, but she had started to make efforts to get along with people from five years ago, and recently, she had been living a life of enjoying sports. She said that at first she started swimming because it was a sport she could enjoy alone, but now she was enjoying various sports and hobbies by making time, even in her busy daily life with the purpose of getting along with people. Client C had hypochondria because both of her parents had gastric cancer and lung adenocarcinoma, and had an obsession about her safety because she had memories of a burglar breaking into her house when she was 4 years old. As can be seen in [Figure 13], she was expressing both herself and her family as snowman. In particular, she chose the snowman making a happy face in a bathtub as herself. She said that the reason she chose a sitting snowman rather than a standing snowman was that 'it looked free'. When looking at the bathtub, it can be seen that she expressed the water with bluish cubic zirconia beads, and snow with sparkling pearls scattered all over the sandbox. When looking closely, it can be seen that she placed hot coffee and two aromatic scented candles near the bathtub, which she said were the coffee she would drink and her favorite scent of eucalyptus. Client C placed herself next to water, hot coffee, and scented candles, but placed her other family members with a polar bear. As for the reason, she explained, 'Even if I disappear, I will always be sparkling next to her family, whether as water, snow, or nice scent that blows in the wind'. It was for this reason that she chose both water and pearls as the glittering objects. She said that although a family members could melt or turn into other things like her, but they would be in a safe place with the polar bear, and she would be always with them. Client C was unconsciously anxious that she could disappear from the side of her family, and she had an obsession about safety and placed a polar bear next to her family members other than her. However, she consciously placed water, snow, and fire next to the snowman, and the expression of them with shining pearls and cubic zirconia beads was interpreted as integrating and overcoming fear and anxiety. Client C symbolized her family members and herself as snowman, and said, 'Even if my family members disappear like me, we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This was understood as indicating that she was recognizing that they would be always together as shining new beings, even if they 'return' in different forms whenever and wherever. Client C was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 opposites of life and death were integra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symbol of the snowman, which is the self-representation of client C, was a symbol toward Self-realization, that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Figure 14] shows the symbols of the family snowman expressed in the Sandplay therapy session in client D's art therapy program. The snowman necklaces were made with silver

clay, which actually becomes to have 99% silver content when baked, and silver clay has a characteristic to be dried quickly on its surface at the body temperatur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Silver jewelry is usually shiny and beautifully expressed, but when used as an expression medium for art therapy, its characteristics reflect the individual'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unconsciousnes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good tool for treatment and counseling. Client D is a young CEO in her late 30s. She was on good terms with his dad, but not with his mom. In her sand play therapy scene, client D continued fiddling with sand while staring blankly at the sand for at least 5 minutes. She repeatedly divided and collected the entire sand with her fingers and palms, and finally expressed a mountain in the middle of the sandbox. On that mountain, she placed his father and himself at the top, and his mother and sister at the bottom. Client D said that while she was touching the sand, she thought it was very soft and smooth, and she, like other participants, was thinking about why she didn't fix the snowman to be smooth. As the reason, she said that she was embarrassed at first when the surface of the snowman cracked, and she felt that the shape was the current shape of her family hurt by conflicts with each other. However, regarding the fact that he left the snowman as it was without correcting it, he said, "The rough outward appearance of the snowman is not the real appearance, and if I make it shiny through polishing, it would be the real appearance. Therefore, I left it as it was." As an explanation of the sandplay therapy scene, client D said that herself and her father usually tended to ignore her older sister and mother. She said that in the scene, the two who had been always ahead of the other two in all aspects went down the mountain together and all four were about to climb back up the mountain slowly together. Client D was looking into the inner side of her family through an art therapy program that included sand play therapy in its sessions and was newly aware of the value of beauty. The expression that the superficial ugliness was never ugly, and that it could be seen as beautiful through her own creative process could be understood as the true integration of opposites.

V.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nowman representing innocence in childhood. The snowman meant the emotion of innocence and was a symbol of transcendence and return to people. The snowman had both the ambivalent positive and negative symbolisms, and was a symbol of enlightenment and transformation that connects time and space.

The snowman inevitably undergoes a process of creating the shape of a person, that is, a shape resembling themselves or someone else. Whereas the snowman made in childhood involves the fear of melting and disappearing, the snowman has become an object that can

face and accept fear as the person has become an adult. This was also shown in sandplay therapy cases, and the snowman was no longer a disappearing entity, but was a shining symbol of return. Perceiving the disappearance of the snowman as a return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Self-realization intended to recognize and integrate unconsciousness.

Jung (1964/2016) viewed the effort to turn unconsciousness into consciousness while accepting the shadow, anima, and animus, which are the archetypes in human inner side without suppressing them a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at is,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A snowman can make the process through which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are integrated into a more realistic experience. When a snowman is made, the smallest snowball becomes the center, and gradually rolled on snow or added with snow to the outside so that it is gradually made into a human shape. The three-dimensional snowman shaping process as such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type of mandala shape in which the middle becomes the center and is connected. The melting or disappearing phenomenon of the snowman at this time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ecovery of a flexible Self that is reborn in a different form or the totality toward Self-realization mentioned in analytical psychology, instead of the washing away or loss of the Self. The snowman is a symbol that connects life and death and integrates opposites. The snowman is a symbol of the great cycle of nature that lives forever as different beings everywhere,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Self-realiz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ymbol of the snowman that appeared in various cultural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 snowman reflected unconsciousness to peopl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and the repeated natural circulation of the snowman reflected and resolved the psychological conflicts in the inner side of individuals.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are integrated only when they are not opposite to each other, but they become the basis of each other and understand each other. Light shines brighter only when there is darkness. The union of opposites is achieved only when the opposites in the inner side of oneself are faced and understood, and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that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Understanding the symbol of the snowman can help deeply explore the inner side of individuals in the field wher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herapeutic help are needed.

These days, a tool to make artificial small mini snowman in cute and funny forms using a snowman making mold has appeared. Recently, snowman-making performances have appeared in which snowman are made in various forms, rather than stacking round snowballs, such as making Disney characters like Elsa and Olaf of 'Frozen' similar to real ones. The expressions of snowman, which were represented by the forms of circles and spher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re may be desires for other expressions, but this study did not deal with that. It will be left as a task of follow-up studies because it may be the

representation of another inner side of the Self.

The current generation enjoys more experiences through smartphones or various digital devices rather than actual experiences through the five senses. Computer graphics technology, which has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computer graphics can be hardly distinguished from real life scenes through AI deep learning, has come quite deeply into our lives. The close attention paid to the snow expressed in animations so that it was expressed intactly as the natural phenomenon was meaningful in that the snow symbolizes the inner side of human beings. Today when people are increasingly accustomed to digital culture, such as virtual reality and extended reality, studies on symbols in various fields will be valuable as follow-up studies hereafter.

Today when the climate crisis situation caused by global warming is becoming an issue around the world, it is very regrettable that areas where we can meet snow are gradually decreasing hereafter. The climate crisis situation will not be easily resolved without changing the existing structure of our lives.. Hereafter, a mature attitude of life that can willingly accept the opposite elements of life, 'comfort' and 'inconvenience', will be actively required. The attitude as such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integrate opposites and as a practical task to realizing the Self, so that efforts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with natural environments can be supported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It is sincerely hoped that the snowman will not be a natural phenomenon that can only be seen digitally by remote future generations.

References

- Allan, T. (2015). *The symbol detective :how to decipher mystical motifs - and know where to find them.* (N-Y. Kim, H-Y. Jo & J-Y. Han, Trans). Hawoo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46)
- Ammann, R., Kast, V., & Riedel, I. (2021). *Das Buch der Bilder: Schätze aus dem Archiv des C. G. Jung-Instituts Zürich.* (K-H. Park, Trans.) Mujintree.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Aniella, J. (2012). *Erinnerungen Traume, Gedanken von.* (B-Y. Rhi, Trans.). Zipmun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1)
- Byeon, G-S. (2016). *Even Snowmen Love You.* Yeok.
- Cha, S-I. (2014). Study on the image of snow in Korean literature. *Asian Gangwon Folk Custom*, 28, 301-337.
- Choi, S-H. (1996). *Snowman.* Segyesa.
- Cooper, J. C. (2007).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Y-K. Lee, Trans.). Kach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Daily Herald (2019. 12. 4) McHenry County museum celebrates 50 years of TV's 'Frosty the Snowman'.
<https://www.dailyherald.com/submitted/20191204/mchenry-county-museum-celebrates-50-years-of-tvs-frosty-the-snowman>
- Dedieu, T. (2020). *Snowmen live forever*. (E-J. Park, Trans.). Ttalgi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Doosan Donga Librarian's Editorial Department's edition (2016). *Donga new Korean dictionary*. Doosan Donga.
- Ha, B-N. (2019). An in-study of the symbolic structure of the season in "Snowing on the Map".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65, 131-158.
- Ham, G-S. (2017). *Solitary conversations: Zero (0), infinity (∞), and the snowman*. Nanda.
- Han, Y-S. (2022). The representation of snow in the sij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94, 251-274.
- Jang, M-K. (2022). *Analytic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Hakjisa.
- Jeong, D-C. (2013). *Lao Tzu Reading Method*. Antiquus.
- Jo, H-Y. (2004). Christian Spirituality and Yun Dong-ju's Po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ological school, Hyupsung University.
- Jung, C. G. (2016). *Man and his symbols*. (B-Y. Rhi, Trans.). Zipmun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Jung, C. G. (2017). *Mysterium Coniunctionis*. (M-J. Jung, Trans.). Boogl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4)
- Jung, C. G. (2023). *Psychology and alchemy*. (S-Y. Kim & M-J. Jung, Trans.). Boogl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 Kim, E-J., & Kim, John Y. (2012). A Study on The Union of Opposites on The Circle as Symbolic Element.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3(1), 107-118.
- Kim, N-Y (2023). *The world as a symbol*. Changbi Publishing.
- Kim, S-H. (2016, August 24). Gyeongseop Byeon, Novel collection 'A snowman loves too' published. ilyo newspaper.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98754
- Lim, H-G. (2023). *Lao Tzu Tao Te Ching based on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Chinese characters*. Para Academy.
- Minjungseorim editorial department's edition (2016). *Essence Korean Dictionary*. Minjungseorim.
- Moon, B-H. (2020). A study of the white imagery depicted in sijo: - Focusing on clouds, snow, and bird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86, 213-234.
- Moon, H-Y., & Han, Y-J.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ult play therapy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parenting stress experience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 effec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1), 47-67.
- Na, J-Y (2008). Colors in traditional Korea: symbolic aspects and application.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9(2), 283-292.
- Oh, K-N. (2004). *Tao Te Ching*. Hyeonamsa

- Park, H-J., & Na, J-Y. (2010). The Significance of the Chromatic Value of the Color Whit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2), 193-201.
- Park, U-G. (1983). A Study on the White Image in Gosijo(古時調). *Academic Papers*, 3.
- Park, Y-S (2007). *Color Glossary*. yelimbook.
- Rhi, B-Y. (2015). *Stories on Analytical Psychology*. Zipmundang.
- Rhi, B-Y. (2019). *Lao Tzu and Jung*. Hangilsa.
- Rhi, B-Y. (2021). *Self and Self realization*. Hangilsa.
- Riedel, I. (2004). *Farben n religion gesellschaft, kunst und psychotherapie*. (Y-H, Chung, Trans.). Hakg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Sia. (2017). Snowman[Song]. Snowman[Album]. Monkey Puzzle/Atlantic.
- The Rabbit Hole. (2018. 12. 19.). Frosty the Snowman(1969)-Full Movie[Video]. YouTube. <https://youtu.be/bSzBBK8gC6c>
- Von Franz, M. (2022). *Alchemy: introduction to the symbolism of alchemy*. (S-I. Lee, Trans.). C.G.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Yu, M. (2014). A Study on Snow Representation of Animation 「Frozen」.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10(4), 170-188.

Received : May 31, 2023
Revised : July 17, 2023
Accepted : August 11, 2023